# 도요타 게 섰거라… 현대차, 연비 45% 올린 HEV기술 공개

**전기차 캐즘에 투트랙 전략 본격화**
**연비·성능잡은 차세대 HEV시스템**
**팰리세이드 시작으로 확대 적용**
**북미 하이브리드 생산 병행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력 효율성을 최대 45% 향상시킨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도요타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서울 중구 문화공간 크레스트72에서 열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데이'에서 기존 대비 연비효율을 45%까지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다른 차종에도 확대·적용한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크레스트72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에서 전동화개발담당 한동희 부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도가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모터만으로도 주행 가능한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주행성능을 강화하는 2.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두 개의 모터가 내장된 신규 변속기에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차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성능과 연비를 제공한다.

모터를 현재 1개(P2)에서 2개(P1·P2)로 늘려 기존보다 연비, 출력을 개선했다. P1모터로 엔진에 동력을 전달하고 구동력을 분배해 연비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했다.

한동희 현대차 전동화개발담당(부사장)은 "오랜 시간 축적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에 적용된 전동화 기술력을 집약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고객에게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성능의 차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북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HEV) 모델에 적용한다. 이를 시작으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등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팰리세이드 2.5터보 HEV는 최고연비 14.1㎞/L, 최고출력 334마력, 최대토크 46.9kgf·m다. 동급 2.5터보 가솔린 모델보다 연비를 45% 높였다. 최고출력과 최고토크는 각각 19%, 9% 높아졌다. 동시에 배출가스는 34% 절감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속기를 다양한 엔진에 조합해 100마력 초반부터 300마력 중반에 이르는 시스템 출력 커버리지를 구현, 이를 바탕으로 소형부터 대형 및 럭셔리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현재 3종에서 2030년까지 5종으로 확대한다. 앞서 2026년 후륜구동용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제네시스 주요 모델에 순차적으로 탑재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럭셔리 브랜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캐즘에 따른 시장 흐름에 맞춰 전기차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이브리드 생산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전략을 공유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라인에 투자를 진행했다. 당초에는 HMGMA에서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변화에 맞춰 하이브리드를 병행 생산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앞세워 하이브리드 강자인 도요타와 경쟁을 예고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서울시 '토허제' 확대지정 한 달**

## 가격 상승폭 둔화… 거래량도 진정세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간,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3주) 대비 4월 2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하며 가격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일인 지난달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이현진기자 lhj@

---

## 관세여파, 증시 급등락에 투자수요도 늘어

〉〉1면 '생활비 모자라…'서 계속

**◆ 신용대출 증가세 전환**

반면 신용대출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2조 6658억원으로 지난달 말(101조 6063억원)과 비교해 1조 595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 -4861억원 ▲올해 1월 -1조 5950억원 ▲2월 -493억원 ▲3월 -3527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달 증가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광풍이 일었던 지난 2021년 7월(1조 836억원)이후 45개월 내 최고 증가 폭이다.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활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신용대출도 월초에는 증가했다가 월말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신용대출을 월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일이 있는 25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여파로 증시가 급등락하자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